

<하기 글은 2017년 6월 20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삼성전자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위해 활동하는『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는 격월 정기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5일,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4기 위원들의 첫 번째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이번 달부터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에 함께하게 된 동탄3동 고윤수 위원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고윤수 위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위촉식을 마치고 지난 두 달간 삼성전자에 접수된 주요 민원 내용과 조치 결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화성캠퍼스 체육시설의 야간 조명과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이 화성시청으로 민원을 접수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주민들의 수면 방해와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등타이머를 설치해 체육시설 조명을 오후 9시 30분에 일괄 소등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사업장 인근 주택가의 불법주차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녹지 훼손 등 불편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는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주 협력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계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진행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소개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2개월간 △화성시 6개 자매마을 노후 보안등을 LED 제품으로 교체하는 ‘빛 모아(more) 세이프(safe)’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행복릴레이 사랑의 집’ △어린이이 횡단 안전구역 ‘엘로카펫 설치’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업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진행된 ‘비타민캠프’가 소통협의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1박 2일 동안 진행된 캠프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단련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로 진행된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4기 지역 대표위원 선거에서는 반월동 김상우 위원이 선출되었는데요. 회의가 끝난 후 김상우 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김상우 위원

Q1) 안녕하세요, 김상우 위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4기 지역 대표위원을 맡은 김상우입니다. 저는 반월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며 소통협의회와 인연을 맺어 작년부터 소통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올해는 지역 대표위원으로 선출돼, 지역주민분들과 더욱 많이 만나 뵙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Q2)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4기 지역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지역 대표위원으로 뽑아준 소통협의회 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동안 반월동 지역주민을 대표해 소통협의회 활동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지역 대표위원으로서 지역주민은 물론 소통협의회 위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 동참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협의회는 지역사회와 삼성전자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지역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6월 정기회의의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출범식 이후 첫 만남인 만큼, 이번 정기회의는 위원들의 열의로 뜨거웠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알린 4기 위원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